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

Effort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Architecture Industry



이 상 정 / 참여이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Lee, Sang Jung / Chief Commissioner,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Republic of Korea
sjlee6836@naver.com

'우리 건축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큰 명제를 갖고 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되었다. 위원회의 주요활동방향은 국민체감형 건축정책, 미래를 대비하는 건축정책, 건축문화진흥 기반 구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동안 국내외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한 해 가장 큰 관심사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이었으나, 몇몇 사정으로 미루어져 금년에는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 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생활공간의 질을 높이고 건축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경제 성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서 관련분야가 발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다. 즉, 건축서비스산업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설계•시공•자재의 표준체계 및 정보체계의 구축, 발주방식의 다양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 촉진, 창업 지원,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센터'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이법의 제정은 건축계가 바라는 매우 실질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약된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 포럼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의 건축문화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 포럼 개최 지역은 광역경제권역인 5+2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개 권역과 강원권•제주권을 하나로 묶어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011년에 6회 개최하였다. 201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4월 19일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에서 충청권역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을 6회 개최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 지역으로부터 수렴된 공통된 사항은 젊은 층이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형설계사무소와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소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최근의 유럽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되었지만, 건설업계의 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의 턴키제도,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PQ) 등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므로 신진건축사는 참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진건축사 발굴•육성방안'의 일환으로 45세 이하의 젊은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외국의 경우도 40세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하는 유럽의 'Europan', 35세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Under 35 공모전' 등이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올 해는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포항시에서 총 10개 사업(공동주택,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공

공건축)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건축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젊은 건축사의 창의적인 활동이 왕성하길 바라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정례화하고 규모와 적용분야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설계공모의 보편적 시행과 적정한 설계대가 기준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설계공모 참여경비의 과다지출이 문제시 되었다.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특성•유형•규모별로 다양한 공모 제도를 도입하고 선정절차, 평가기준 등을 개선하여 발주자 및 참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건축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위하여 건축관련단체장과 조찬회를 매월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는 Mayor's Forum을 천안시에서 개최하였으며, 녹색건축•도시 인증제 통합 및 국가브랜드화를 위하여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Thinking Human & Environment) 녹색'이라는 의미의 'THE Green'을 제안하여 법제화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정책은 인류생존의 문제이므로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서 판단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가야하는 범국가적인 문제이다. 이를 실행하는 방안으로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련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녹색관련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녹색건축사업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녹색건축물의 조성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는 녹색건축과가 국토해양부에 신설되었다. 국토해양부에 건축관련 업무가 확대되므로 총괄하는 건축국 설립의 당위성이 점차 높아지며, 나아가 독립된 건축청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로 '녹색건축대전'을 금년부터 추진 할 계획이며,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녹색건축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건축물을 공모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공헌한 자(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을 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금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창의체험'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건축문화체험행사의 하나로 전국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을 선발하여 1박2일 동안 강화도 성산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되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건축문화인 한국전통건축의 특성과 우수성을 이해시키고,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훌륭한 건축 전문가나 건축주로 성장하길 바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끝으로 건축의 공공성과 올바른 건축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시행해 온 '건축의 날' 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 훈격을 격상시키는 일이다. 건축계의 유공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여 건축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을 경제논리와 사업성 중심의 물리적인 건설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대변하고 건축철학을 담아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축문화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은 1979년 미국의 필립 존슨에 이어 2012년 중국의 왕수 까지 총34회에 걸쳐 19개국에서 37명의 건축가가 수상하였으나 아직 한국인은 보이지 않는다. K-pop, 스포츠계, 연예계 등에서 한류열풍이 온 세계를 흔들고 있듯이, 우리 건축계도 한국건축(K-arch)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건축가도 프리츠커상을 받는 영예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계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훌륭한 건축가를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건축발전위원회(위원장:정현수, 책임위원:정무웅)는 건축학회 시니어들의 모임입니다. 인생, 학술, 사회활동 등에서의 경륜과 지혜를 환원, 재생시키는 모임으로서 본 회지에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시니어 칼럼을 구성하였습니다.